

## 새내기 초등과학교사의 바람

학교에 첫발을 내디딘 지 일 년이 되었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에도 교육실습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보기는 했지만, 지난 일 년은 한 학급의 담임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실습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책임으로 부여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선배 교사로부터 새내기 초등교사로서 과학을 가르칠 때 경험한 것과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들었을 때, 다소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과학 교과를 가르칠 때 실수투성이었던 지난 일 년을 돌아보고, 좀 더 바람직한 초등과학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작년 3월에 학교에 부임해서 맡게 된 학년은 5학년이었다. 5학년 담임교사가 된 나는 교과 전담 교사가 가르치는 3개의 교과를 제외하고, 8개 교과의 교재 연구를 해야 했고, 학교의 각종 행사와 업무로 인해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다. 모든 교과의 지도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긴장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과는 과학이었다. 과학 교과를 가르치면서 내가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과학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도 인문계열이었고, 교육대학교의 심화과정은 음악이었다. 과학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 교육대학교에서도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떻게 실험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매시간 실험 준비를 하고 아이들과 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었다.

둘째, 과학 교과의 내용이 현상 중심으로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렵고, 실험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리 교사용 지도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준비물을 챙기고, 교과서와 지도서의 안내대로 열심히 실험을 하는데도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교실이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이 실험에 실패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서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5학년 1학기에 가르치는 거울과 렌즈 단원은 교사용 지도서를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열심히 교재연구를 했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가르치는 데 정말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셋째, 내가 느끼는 것처럼 정말 교과서 내용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능숙하게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과학 교과의 내용 중에는 아이들이 40분 한 차시 동안 실험을 하거나 배우기에 분량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 내에 가르치기 위해서 서둘러서 실험을 끝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해서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수업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바람을 몇 가지 가지게 되었다.

첫째, 과학 심화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심화과정 학생들에게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직접 해보고, 관련

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강좌가 더욱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배웠던 과학과 관련 강좌는 과학교육론과 과학교수법이었는데, 주로 과학과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이론, 과학과 수업모형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과학 교과에 내용학적인 지식은 거의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사가 실험과정이나 결과를 설명해 줄 때 관련 개념이나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과학과 관련 강좌를 통해 우수한 과학과 수업에 대한 많은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대학생들은 수업 영상 자료를 통해 과학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험이 잘 이루어졌을 때 또는 실험이 실패했을 때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그에 따른 교사의 대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법들은 새내기 교사들이 좀 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돌아보면, 나의 초등과학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교육대학교에서 과학과 관련된 교과교육학적 내용을 배움으로써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학교에 발령이 나면 곧바로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다양한 교과를 다루어야 하는 초등교사에게는 과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내용학적인 지식을 쌓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아쉬움 속에서 지난 일 년 동안 새내기 교사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선배 교사들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조언들이었다. 실험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부터 실험에서 주의해야 할 점,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구의 사용 등 질문을 할 때마다 선배 교사들은 풍부한 학생 지도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을 해 주셨고, 그 때마다 선배 교사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는지 모른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선배 교사들처럼, 아이들과 즐겁게 과학을 공부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과학 수업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멋진 초등과학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 선 영(대전매봉초등학교)

## 첫 발령의 설레임, 그 후...

나는 올해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임교사이다. 임용고사에 합격한 후 아이들과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잘 할 수 있을까란 기대와 걱정으로 학교에 출근을 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교직 생활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 수업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일주일 동안 수업 시간은 20시간이다. 하루에 4시간. 하루 8시간 근무 중 4시간 수업이면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전 시간을 피드백 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전혀 수업 준비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나 담임교사의 경우 조회와 종례, 아침 자율학습 감독까지. 틈틈이 시간 내서 상담도 해야 하고 찾아오시는 부모님과의 상담도 해야 한다. 더불어 각자 맡은 업무 분장에 따라 공문처리와 각종 잡무들. 모든 업무를 NEIS를 통해 하기에 그 시스템에도 적응해야 한다. 대학에 다닐 때엔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고, 교육실습생일 때에도 상담은 해본 적이 있지만 공문처리나 다른 업무에 대해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배워야 한다. 업무 시스템에 대해 배우느라 선배 교사분들을 쫓아다녀야 하고 서툴러서 일처리가 늦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에는 초과근무까지 해서 일을 끝낸 적도 많았다. 수업에 대해 신경 쓰는 시간보다는 다른 업무들에 신경 쓰는 시간이 더 많았다.

만일 공문처리 등에 대해서 미리 조금이라도 배우고 현장에 들어갔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 임용 전 직무연수에서 공문에 관한 강의를 들긴 했지만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업무에 관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배워야 하는 것이기에 교육실습 기간 동안 학교 업무에 관한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나 수업,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초등학교 때는 과학을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나는 정말 즐거운 수업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아이들이 내용에 관한 이해도 잘 하고 수업시간을 지루해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램이었다.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현장에선 나의 수업을 보고 평가해줄 사람이 없었다. 또한, 학생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교육실습 때에는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수업을 준비했었는데 현장에 나와 수업을 해보니, 나의 수업을 듣고 평가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도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 나의 수업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평가는 학기 말에 아이들에게 받은 설문지가 전부였다.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업이 너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초임 교사 때만이라도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준다면 수업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대학교 수업 시간에 포함이 된다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어떻게 해야 맞는 거야??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대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 대해선 “1년이 편하려면 처음에 아이들을 잡아야 한다.” 라는 것이 선배 교사들로부터 받은 충고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았다. 또, 무서운 것보다는 학생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갔다.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다가가야 하는 지 의문이 생겼다. 교사와 학생이 친근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경계선은 존재해야 하고 교사로서의 권위가 필요하기에 학생을 대할 때 마냥 친근하게만 대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자신들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나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처음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교과 담당 교사로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과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상담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에 이론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다. 나와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대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다. 특히 교칙을 어겨 지도를 해야 하는 학생들과의 상담은 더욱 어려웠다.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에도 아이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지, 어느 정도 돌려 말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다. 학부모님과 어느 정도 선까지 친분을 유지해야 하는 지도 어려운 문제였다.

대학교 수업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3학점짜리 수업 하나가 전부였다. 상담에 관한 수업이 그 안에 있긴 했지만 상담 이론에 관련된 것만 배웠다. 현장에서 근무할 때 필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용 방법이다. 교직 과목 중 상담에 관한 수업이 따로 있다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듣는다면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분을 초청하여 현장에 대한 특강을 듣는 것도 예비 교사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교직 생활에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하며 1학기를 보냈다. 대학을 다니며 수업을 들을 때는 잘 몰랐지만 현장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 그 때 배웠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며 적용하는 부분이 많았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말이다. 대학교의 수업이 조금 더 보강된다면 곧 현장에 나올 예비 교사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의 난 날 바라보며 웃음 짓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1학기 때 보다는 더 나은 모습의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2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박 지 연(경기도 비룡중학교)

☞ ‘현장의 목소리’는 과학교육현장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소식, 과학교육과 관련한 의견, 과학탐구, 실험실습, 교수학습자료, 교육과정, 교수법, 과학동아리 활동 자료 등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현장과 학교교육〉에 실린 글에 대한 리뷰를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A4 한 쪽 정도로 글을 작성하여 본 학회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장의 생생하고 소중한 기록들이 함께 하는 코너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원고를 기다립니다.